

# 제주도민 항쟁의 전말 기록한 《이재수 실기》

하버드대 앤칭도서관의 고서들 — 10

허경진 | 연세대 국문과 교수

《이재수 실기》는 1901년 제주도에서 횡포를 부리던 천주교도에 대해 일어난 이재수 난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도민항쟁을 이끌었던 주동자 이재수의 한 평생을 기록한 글로, 이재수의 누이동생 이순옥이 오라버니의 한을 풀기 위해 일본에서 간행한 책이다. 이 사건을 교난이나 민란으로 규정하던 종교계나 지배층의 논리가 아니라, 민중의 입장에서 당시의 민중항쟁을 기록해 역사의 이면을 엿볼 수 있다.

대부분의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패배자는 말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는 당대 집권세력에서 지난날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화나 당쟁에서 승리한 쪽이 기록했고, 그래서 뒷날 그 자료들을 인용하거나 평가할 때도 진실을 제대로 찾아내기 위해서는 조심스럽게 행간을 읽어내야만 했다. 민란의 경우는 더욱 그러해서, 흥경래나 진주민란의 경우도 대부분 승리자의 기록만 빛을 봤다.

이재수(李在守, 1877~1901)는 제주도에 태어난 하층민이다. 기록에 따라서는 관노(官奴)라고도 했고, 마부나 목자라고도 했다. 그런 신분에서 뛰어나와 도민항쟁을 주동하다가 승리하고도 처형당했던 이재수의 한 평생을 기록한 글이 바로 《이재수 실기》다. 실기(實記)라고 이름 붙은 이 책은 물론 정부나 지배층에서 간행한 것이 아니라, 이재수의 누이동생 이순옥이 오라버니의 한을 풀기 위해 한 평생을 바친 끝에 일본에서 간행한 책이다.

## 천주교의 횡포에 저항해 항쟁 일으켜

제주도는 예로부터 삼다(三多)와 삼무(三無)의 섬으로 알려졌지만, 삼재(三災)의 섬이기도 했다. 수재(水災)·한재(旱災)·풍재(風災)가 겹치면 흉년이 이어진다. 눈이 없는 제주도에 흉년에다 관가의 착취까지 겹치면 결국 민란이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어느 한 지역에서 민중의 지도자가 일어나 이의 시정을 관에 요구했다. 이런 율기는 주로 대정읍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곧이어 장두를 중심으로 한 민중들이 관과 치열한 항쟁에 들어갔으며, 중앙에서 군사를 이끈 관리가 제주도에 들어와 민심을 수습했다. 항쟁 끝에 어느 정도 민중들의 요구가 시행되면 장두가 자수했는데, 장두는 결국 처형됐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민란이 일어났다. 이번에도 또 다른 장두가 죽음을 각오하고 민중의 지도자로 나서는 것이다.

1901년 이재수가 이끌었던 민란은 예전의 민란과는 성격이 달랐다. 흉년과 무리한 세금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긴 했지만, 안하무인격인 천주교의 횡포가 불을 당겼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당시 천주교 신부들은 “여아대”(與我待)라고 쓰고 고종 임금의 옥새까지 찍힌 여권을 갖고 다녔다. “나와 같이 대접하라”는 뜻이었으니, 지방 수령들도 꿈쩍 못했다. 제주도에 들어온 프랑스인 신부들은 제주도민들을 야만인같이 여겼으며, 무기를 지니고 다니다가 제주도민들을 협박하거나 사형(私刑)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던 끝에 천주교도들의 횡포에 항거하던 선비 오신락이 정의교당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자 민병들이 봉기했으며, 대정군수와 함께 시체 검안에 참여했던 통인 이재수가 “토멸양인(討滅洋人) 회복주성(恢復州城)”을 내세우고 장두로 나섰던 것이다. 수백명의 천주교도들은 프랑스인 신부들과 함께 제주성 안으로 들어가 무기고에서 총기들을 탈취해 무장하고 농성했으며, 서진(西陣) 장두 이재수는 대정읍 중심의 민병을 이끌고, 동진(東陣) 장두 오대현과 강우백은 정의읍 중심의 민병을 이끌고 제주성을 에워쌌다. 한 달 남짓 성 안팎에서 전투가 계속되다가, 성안 백성들의 율기로 결국 성문은 열렸으며, 이재수의 지휘에 따라 천주교인 수백명이 처형됐다.

천주교에서는 이 사건을 ‘교난’이라고 불렀으며, 지배층에서는 ‘민란’이라고 불렀다. 이 난이 평정된 뒤, 여러 사람들이 이 난을 자신의 입장에서 기록했다. 우선 지배층의 기록 가운데는 김윤식(1835~1922)이 기록한 일기 《속음청사(續陰晴史)》가 널리 알려졌다. 그는 1898년에 을미사변에 연루돼 제주도에 종신유배됐다가, 제주도민들의 항쟁을 직접 목격하고 비교적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기록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만약 김윤식이 그곳에 없었더라면 이 사건은 더더욱 지배층의 논리로만 기록됐을 것이다.

제주도민들은 이재수가 살았던 대정읍 인성리 추사적거지 입구에 삼의사비(三義士碑)를 세워 민중의 지도자 오대현·강우백·이재수의 죽음을 기렸다. 특히 오대현이나 강우백 같은 선비들과 달리 관노

출신이었던 이재수는 지금까지도 제주도 심방의 무가와 민담 속에 살아 있는 민중의 장두로 전승되고 있다.

### 일본에서 실기(實記)로 간행돼

제주도민들의 항쟁은 국제적인 여론을 불러일으켜, 프랑스와 일본의 군함까지도 제주도 앞바다에 닳을 내리고 간섭했다. 결국 고종이 칼리사 황기연을 보내 윤음을 반포하면서 도민들의 호소를 들어주기로 하자, 이재수를 비롯한 주동인물들이 관덕정에 모여 자수했으며, 만여명의 민병들도 무기를 내놓고 자수했다. 평리원에서 이재수를 민란의 주모자로 몰아 재판한 뒤, 곧이어 교수형이 집행됐다.

제주도민들의 한을 풀어준 이재수가 억울하게 죽자, 그의 누이 순옥(順玉)은 오라버니의 억울한 누명을 풀기 위해서 뛰어들었다. 그러나 곧이어 조선이 일본에 강제로 합병당하자, 조선에서는 더 이상 그 억울함을 풀어줄 방법이 없었다. 당시에 제주도를 관할하던 전라남도청이나 조선총독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그래서 순옥은 일본으로 건너갔다. 남의 집 바느질이라도 해서 자금을 마련해, 오라버니의 실기를 간행하기 위해서였다. 이순옥은 오사카에 살던 제주도 출신의 조무빈(趙武彬)을 찾아가 우선 조선말로 오라버니의 실기를 지어 달라고 청했다. 조선 사람에게라도 오라버니 죽음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심청전》 같은 소설을 즐겨 읽었기에 소설의 영향력을 잘 알았던 것이다.

조무빈은 직업적인 소설가나 문인이 아니었지만, 이순옥에게 설득당해 이재수의 실기를 짓기로 했다. 이 책은 일본 오사카에서 한글 세

“도민항쟁을 주동하다가 승리하고도 처형당했던 이재수의 한 평생을 기록한 글이 바로 《이재수 실기》다. 실기(實記)라고 이름 붙은 이 책은 물론 정부나 지배층에서 간행한 것이 아니라, 이재수의 누이동생 이순옥이 오라버니의 한을 풀기 위해 한 평생을 바친 끝에 일본에서 간행한 책이다.”

로쓰기로 조판했으며, 한자를 함께 썼다. <기자의말(記者之言)>로 머리말을 대신했는데, 조무빈은 자신이 이 책을 짓게 된 동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천주교가 조선에 들어와 근백년 동안 암암리에서 포교에 진력하여 그 세력은 장차 우리 삼천리강산 구석구석에 사지 밋치게 되었다 이 만일 리의사가 업섯더라면 불국(佛國)의 세력과 교도들의 횡포가 전 조선에 파급되었을 것이다

리의사는 참말 조선사람이며 동양사람이다 종교혁명의 걸인이다 이 책은 기자 처음 저술한 고로 사실이고 실사인 것은 보증하지요만은 술자지능(述者之能)이 업기로 문구와 구절이 변변치 못하와 단지 리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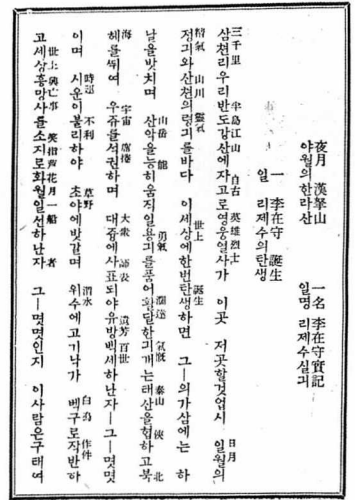
실기라고 명명만 하고 애독(愛讀) 저시(諸氏)의 압해 올니개 되었사오니 여러분이여 문구와 구절에 취미를 구하지시 말고 이 책의 내용과 리의사의 거사에 취미를 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이 책은 1931년 오사카 중도문화당(中島文華堂)에서 《야월(夜月)의 한라산(漢拏山)—일명 리제수실기(李在守實記)》라는 제목으로 간행됐는데, 1 <리제수의 탄생>, 2 <리조말엽의 정치와 천주교도의 횡포>, 3 <리제수의 거의(舉義)와 천주교의 섬멸> 등의 내용으로 집필됐다.

이 책은 제주도에서 천주교를 받아들인 신자들을 “권리를 조화하고 세력에 붓쫓치난 향촌(鄉村) 불량(不良) 파락호(破落戶) 잡류배(雜流輩)”로 묘사했으며, “국법에 범죄한 무리들도 야- 인제는 되었다 하고 호상향응(互相響應)하야 날날이 교도가 느러갔다”고 했다. 이렇게 천주교도가 늘어가자 제주도는 “완전한 불란서 제주도로 화하고 말었다.” 천주교도의 세력이 강성해지자, 결국 도민들과 마찰이 생겼다. “교도들의 행동은 천주교 선교사 구마실 문제만을 빙자하고 량가의 부녀를 능욕하며 금전을 편취할 써안이라 교당과 밋 분교소에서는 제주도 인민에 대하여 민형사(民刑事) 치리권 사지 가지고 사형(私刑)을 임의로 사용하며 교도와 일반민중 사이에 애자지원(睚眦之怨)이 잇을지라도 교도들은 위력을 확장코져 괴어히 보복수단을 취한 연후에야 말엇섯다 (줄임) 언쟁 쫓에 사람을 총살(銃殺)하난등 별별 허다한 일은 일일히 기록할 수업다”.

실기(實記)는 조선시대의 문학장르인데, 이 책은 1930년대에 썼으면서도 조선식 문장과 개화기 문장을 아울러 쓰고 있다. “천연적(天然的)으로 어엽분 쫓은 자연적(自然的) 피여 웃고 어유하(魚游河) 어유하(魚游河) 저- 맑은 물에 잠잠부부침(潛潛浮復沈) 금리어(金鯉魚) 난 제-자의긋 자무락질하것만은” 같은 문장이 바로 그런 예다.

이재수와 1901년 제주도민항쟁은 그 뒤에 제주도 출신의 소설가 현기영이 《변방에 우는 새》(창작과비평사)라는 제목으로 소설화했으며, 프랑스와 한국 합작으로 <이재수의 난>이라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이재수와 이순옥 남매의 한이, 아니 제주도민들의 한이 백년 뒤에야 풀리게 된 것이다. ■



이재수의 난은 지배세력에 의해 민란과 폭거로 기록돼 왔다. 사진은 이재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누이동생이 펴낸 《이재수 실기》의 제1장.